

광주, 연승으로 1R 로빈 마무리...가브리엘 활약 돋보였다



이희균·가브리엘, K리그 11라운드 베스트 11 선정

한 차례씩 맞대결을 벌인 K리그1, 광주FC에서는 가브리엘(사진)과 이희균의 활약이 돋보였다.

2024 K리그는 어린이날 연휴 열린 11라운드 경기를 끝으로 1라운드 로빈을 마무리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경기가 연기된 광주FC와 울산HD를 제외하고는 12팀이 한 차례씩 만나 기싸움을 벌였다.

박태하 감독이 이끄는 포항스틸러스가 승점 24로 순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고, 울산(23점), 김천상무(21점)가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4위 강원FC(승점 15)와는 격차가 벌어져 있는 만큼 '삼파전' 양상이다.

지난 시즌 리그 3위와 함께 구단 역사상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따낸 광주는 6연패 끝에 빠지기도 했지만 시작과 끝은 좋았다.

FC서울과의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하는 등 연승으로 시즌을 연 광주는 이후 6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면서 최하위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제주 원정에서 연패 사슬을 끊은 광주는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도 승리로 장식하면서 연승으로 1라운드 로빈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전전 승리로 승점 12를 채운 광주는 8위까지 올라섰다. 울산과의 1경기를 덜 치렀다는 점도 위안이다.

광주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새 외국인 선수 가브리엘이었다.

3월 2일 서울과의 개막전에서 골을 터트리면서 화려한 데뷔전을 치른 가브리엘은 3월 10일 강원과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만들어 연승의 주역이 됐다.

머리, 오른발, 왼발로 모두 득점을 장식하는 등 눈길 끄는 골 결정력을 보여준 가브리엘은 누구에

게도 밀리지 않는 몸싸움 실력도 보여주면서 단숨에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등극했다.

가브리엘은 4월 3일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시즌 4호골을 장식하며 초반 뜨거운 기세를 보여줬지만 상대의 집중 경계에 막혀 고전을 했다. 침묵을 이어간 가브리엘은 그러나 최근 두 경기에서는 연달아 도움을 올리며 승리 중심에 섰다.

가브리엘은 1월 제주 원정에서 도움으로 공격포인트를 추가했다.

2-0으로 앞선 후반 24분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가브리엘은 이희균에게 공을 보냈다. 문전에 있던 이희균이 왼발로 제주 골망을 흔들면서 왜기골을 장식했다. 가브리엘의 시즌 첫 도움도 기록됐다. 광주는 이 경기에서 3-1 승리를 거두고, 6연패 사슬을 끊었다.

6일 대전과의 경기에서는 가브리엘이 두 골에 모두 관여했다.

0-1로 뒤지던 후반 6분 가브리엘의 패스가 엄지성의 머리로 향했다. 위력적인 헤더가 골키퍼 선방에 막혔지만 흐른 공을 잡은 이희균이 오른발 슈팅

으로 골대를 가르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동점골의 시작점이었던 가브리엘은 후반 41분에는 허율의 머리로 공을 보내, 역전골을 연출하며 시즌 두 번째 도움을 올렸다.

2024시즌 '부주장'으로 광주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이희균은 그라운드에서는 '10번' 선수에 어울리는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올 시즌 광주를 대표하는 '10번'을 단 이희균은 4골을 터트리면서 가브리엘과 팀 내 득점 1위다.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경기 흐름을 바꾸고 있는 그는 정교함도 보여주고 있다. 이희균은 올 시즌 14차례 슈팅을 날렸고, 이중 10골이 유효슈팅으로 기록됐다. 개막전부터 시즌 첫 골을 장식했던 이희균은 제주, 대전전에서 가브리엘과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3·4호골을 연달아 선보이며 광주 반등의 중심에 섰다.

한편 대전전 2-1 승리를 합작한 가브리엘과 이희균은 K리그 11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광주는 베스트 팀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서석고, 전국 검도대회 통합단체전 우승

인천고 3-1로 제압

광주서석고 검도부가 '제7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통합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서석고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경남 남해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통합단체전 결승에서 인천고를 3-1로 제압하며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8강전에서 춘계검도대회 우승팀인 과천고를 상대로 매치스코어 2-2(4-4)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서석고는 '주장' 이윤성이 나선 대표전에서 머리치기를 끝으로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에서 성남고를 꺾은 서석고는 결승에서 인천고를 만났다.

결승에서 선봉 서규원이 차정원에게 1-1, 2위 정우민이 김정원에게 0-0, 3위 박기주가 김태민에게 0-0으로 비겼다. 이어 중견 강현우가 조원희에게 2-0승, 5위 오승준이 김재희에게 2-0승, 부장 이정환이 황준혁에게 2-0승을 거두며 연이어 3점을 따냈다. 주장 이윤성이 김우솔에게 0-1로 패했

지만 매치스코어 3-1로 우승을 차지했다.

서석고는 남고부 1학년 3인조 단체전에서 경복대동고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서석고 통합단체전 우승을 이끈 이강산 감독교사와 남태운 코치는 각각 우수 부장상, 우수 감독상을 수상했다.

한편, 광주서석중 선수단도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서석중 허경도는 남중부 1학년 개인전에서 상인전중 고중수를 상대로 2-0승리하며 금메달을, 옥하준은 남중부 2학년 개인전에서 광명중 박시후에 0-1패하며 은메달을 기록했다.

/김진미 기자 jinggi@kwangju.co.kr



전남과학대학교 골프산업과 파크골프 동아리 '나이스 인' 부원들이 동아리 창단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과학대 골프산업과 제공>

골대 4번... '이강인 교체 출전' PSG, 골대 불운에 올랐다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서 도르트문트에 0-1패...결승 불발

이강인이 후반전 교체로 출전한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PSG는 8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3-2024 UCL 준결승 2차전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에 0-1로 졌다.

지난 2일 1차전에서 0-1로 져 홈에서 역전을 노렸던 PSG는 1, 2차전 합계 점수 0-2를 기록, 준결승에서 탈락했다.

도르트문트는 11년 만에 UCL 결승에 진출했다.

도르트문트는 바이에른 뮌헨(독일)-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승자와 내달 2일 영국 런던의 웹스터 스타디움에서 트로피를 다툰다.

1차전에서는 벤치를 지켰던 이강인은 이날 후반 31분 워렌 자이르 에메리 대신 그라운드에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약 14분 간 뛰었다.

이강인은 이영표, 박지성, 손흥민, 김민재에 이어 UCL 준결승 무대를 뒀던 역대 5번째 한국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라운드를 활발하게 누비던 이강인은 후반 37분 오른쪽 측면에서 자신이 얻어낸 프리킥을 차 올려 마르키누스를 겨냥했으나, 마르키누스의 뒤통수를 맞은 공은 반대쪽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이강인은 후반 44분에 직접 골문을 노렸지만 골



대 왼쪽으로 벗어났다.

PSG는 킬리안 음바페, 곤살루 하무스, 우스만 데멜레를 앞세워 도르트문트의 골대를 노렸으나 전반전 눈에 띄는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절치부심한 PSG는 후반전 시작부터 도르트문트를 강하게 몰아 붙였다.

후반 2분 자이르 에메리가 문전에서 오른발 볼스톱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맞고 나왔다.

절호의 득점 찬스를 날린 PSG는 오히려 도르트

문트에 선제골을 내줬다. 수비 진영에서 패스 실수로 코너킥을 헌납했고, 후반 5분 마츠 후멜스에게 헤더를 내줘 합계 0-2로 밀렸다.

이후 PSG의 골대 불운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후반 16분에 누누 멘데스의 왼발 슈팅이 오른쪽 골대를 맞고 나왔다. 후반 43분에는 문전에서 음바페가 골문을 노렸지만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다.

1분 뒤에는 비타나의 오른발 슈팅까지 또 다시 크로스바를 맞고 무산되며 무득점에 그쳤다. /연합뉴스

전남과학대 '나이스인' "파크골프 널리 알릴 것"

기초과정 교육 프로그램 등 진행

"파크골프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찾는 학생들의 좋은 길잡이 되겠다."

대학스포츠계 셋째로 떠오르고 있는 전남과학대학교 파크골프 동아리 '나이스 인'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2023년 전남과학대 골프산업과에서 창설한 '나이스 인'은 광주·전남 파크골프 활성화 및 동호인 저변확대를 위해 활동 중이다.

총 21명으로 이뤄진 '나이스 인'의 연령층은 5~60대로 높은 편이지만, 최근 33세의 '최연소 부원'이 입회하면서 평균 연령대가 낮아졌다.

'나이스 인' 회원들은 교내 마련된 학과 실습장(9홀)에서 지역 주민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파크골프 기초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운영회 동아리 회장(1학년)은 "파크골프가 타지에서 활성화되는 것에 비해 광주·전남의 열기가 아직 미지근하다"며 "'온가족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는 파크골프가 광주·전남에서도 활성화되길 기원하며 전공 동아리를 창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이스 인'은 꾸준한 대회 참가로 실력을 키우고 있다.

박용석·최성환(이상 2학년)은 지난 3월 대구에서 열린 제1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대회에서 56타로 대학 남자부 3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오는 6월 14·15일 광주 송촌보카골프장에서 열리는 '제6회 파니스마실 호남고객행사 대축제'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회원들은 또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을 준비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량을 넓히고 있다.

오정준 골프산업과 학과장은 "노인 스포츠 개념이었던 파크골프를 대학에서 가르치며 동호인이 넓은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니 기분이 좋다"며 "지도자 입장에서 대회 등에서 성적을 내는 것도 좋지만 중년층이 함께 파크골프를 하면서 건강과 즐거움을 되찾는 모습에서도 큰 보람을 느낀다"고 파크골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발레단 제137회 정기공연 「DIVINE」

2024년 광주상설공연(5월)
 일시 : 2024-05-04(토) ~ 2024-05-26(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일시 : 2024-05-24(금) ~ 2024-05-25(토)
 05.24.(금) 19:30
 05.25.(토) 15:00,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